

## 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위 전절제술시 문합기 크기에 따른 합병증의 고찰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

홍정훈, 이경범, 민병욱, 목영재, 김승주, 김종석

(배경) 자동문합기는 간단한 조작과 안정성으로 좁은 수술시야에서 수기 봉합시 생기는 기술적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어 수술시간의 단축과 합병증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, 현재는 위전절제술에 자동문합기가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.

(목적) 그러나 여전히 적지 않은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으며, 그 중 특히 문합부 협착과 연하곤란이 자동문합기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(대상 및 방법) 1992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병원 외과에서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시행받은 347예 중 고식적 전절제술과 재발에 의한 합병증은 분석에서 제외시키고, D2 림프절 광청술을 포함한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283예만을 대상으로 문합기 크기에 따른 문합부 협착과 연하곤란의 발생빈도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

(결과) 283예 중 247예(87%)는 25 mm 문합기를, 36예(13%)는 28 mm 문합기를 사용하여 Roux-en-Y 단측 문합술을 시행하였으며, 연도별 비교를 보면 1992년과 1993년 이후에는 위전절제술시 거의 모든 예에서 25 mm 문합기를 사용하여 문합술을 시행하였다. 연하곤란을 호소한 경우는 25 mm 문합기 사용시 50예(20.24%), 28 mm 문합기 사용시 20예(55.55%)가 있었으며( $p < 0.05$ ), 문합부 협착은 25 mm 문합기 사용시 11예(4.45%), 28 mm 문합기 사용시 5예(13.8%)로( $p < 0.05$ ), 더 큰 크기인 28 mm 문합기 사용시에 연하곤란과 문합부 협착이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.

(결론) 이에 저자들은 안전한 수술과 적은 술 후 합병증의 빈도의 측면에서 볼 때, 또한 술 후 합병증의 발생 시 내시경적 치료가 있음을 감안할 때, 동양인의 적은 체구에서는 25 mm 크기의 문합기가 적절하고 이의 사용을 권하는 바이다. 문합기의 크기와 합병증과의 좀 더 정확한 관계 파악을 위하여 무작위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.